

■ 철학적 기반

간호 교육 철학의 필요성

연세 대학교 교수

전 산 초

I. 일반적인 교육철학(Philosophy of Education)

1. Student-centered philosophy of education

교수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과정, 학습지도, 평가, 제도까지 하나같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러가지 잡다한 교육철학이 많았으나 결국 간추려 나누어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교사중심의 교육철학(Teacher-centered philosophy of education)이요, 둘째는 학생중심의 교육철학(Student-centered philosophy of education)이라고 하겠다.

첫째는 교수가 모든 교육활동에 核이라는 경위이고,

둘째는 학교의 모든 기구(organization), 교과과정 학습지도의 목적, 학습활동, 실시학습 실습에 이르기까지 학생(learner)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개인적 혹은 집단적(集團的)으로 교육활동에 반영시켜야 하며 여러가지 이런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교육이 어른중심 교사중심이 었다. 이때는 학생의 존재는 어른이 보는 관점, 교사가 보는 관점으로만 해석되었다. 학습자는 양적(量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 어른과는 다르다.

학습자(learnner)는 성장하면서 지적,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여러 면의 경험을 쌓는다. 교육은 이들의 성장 정도에 맞추어 가면서 잡다한 경

험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또하나의 현대 교육철학은

각기 교사의 발전을 위한 성인교육의 참여이다. 이것 없이 발전적 교과과정 계획이나 학습 지도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습회 Semina 또는 Symposium 등에 참여하는 일은 교수들의 의무라는 철저한 생각을 말한다. 이 결과는 교수자신의 전문직으로써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고 그 결과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3. 교육은 융화와 조화와 협조의 철학이다.

사람과 사람, 학문과 학문, 과목과 과목 직업과 직업, 의견(주의)과 의견의 융화 조화 통찰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과정 계획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간호 교육전체에 시급히 요구되는 교육철학이라고 본다.

4. 미래의 세계에서 간호는 leadership을 가지자 하는 철학이다.

간호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leadership은 셀 수 없는 귀한 요소이다. 이것 없이는 고등교육의 필요성마저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그러던 장차 어떤 사람이 leadership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나는 "미래의 세계의 leadership은 Educator가 장악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자 만을 부르는 말은 아니다. 여기에서 "Educator"라는 말은 人間을 복돋아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포함된다.

그렇다면 인간을 복돋우어 주는 직업은 많다. 목사, 교사, 의사, 간호원 모두가 다 Educator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즉 복돋우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교육철학이 간호 교육에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 못박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복돋우어 준다”는 뜻은 심오하고 넓은 철학이 여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즉 여운을 여러분께 던지는 바이다.

5. 전문직업으로서 독립성 있는 학문을 교육해야 하겠다는 철학이다. 즉,

작업적 기능의 독립성을 발전하도록 교육해야 하겠다는 철학이다.

II. 간호의 유래 성질, 목적 정의의 간략한 해명

“Clarification of belief about origin nature, purpose definition of Nursing”

“결국 결과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간호(nursing care)의 질은 그것을 행하는 인간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란 무엇인가.

그 유래와 간호의 성질(nature) 목적(pilosophy) 정의(definitin)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간호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 머리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1900-1930년대 : Florence Nightingale은 간호를 “자연적 치유가 환자에게 힘있게 활동하도록 그를 가장 좋은 상태로 보존해 준다.”라고 했다¹¹⁾.

그시대에는 발맞추어야 할 의학 및 기타 학문은 발전했으나 간호학은 이에 따르지 못했다. 그 시대는 독학으로 또는 경험시험으로 간호원이 됐고 간호행위는 의사의 감독하에 규정되었고, 간호의 독자성은 인식되지 않았으며 의사의 조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철학이었다.

1934-50

이에 비추어

Tavieor는 오늘날과 같이 인간중심의 개인적 간호가 강조되고 간호원의 교양이 중요시될 날이 올 것을 예측한 것 같다. 즉, 그는 간호란 개인의 신체상 및 정신생활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 및 예방적 처치를 실시하는 것, 동시에 이상(理想)사랑, 동정, 지식, 그리고 교양등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써 그러면서도 예술적 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될 때 간호의 심오한 본질은 비로소 자태를 나타 낸다”라고 한것만 보드라도 알 수 있다¹²⁾.

1948

Esthe L. Brown이 간호의 사회적 필요도를 조사 하여 “Nursing for the future”라는 보고서로서 개출하여 간호의 성질과 목적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 주었고¹³⁾.

1955년 ANA에서는 간호업무의 정의를 승인했다.

즉, 전문적 간호란 “Professional nursing”이란 상병자 또는허약자의 관찰(observation), 간호(care) 및 조언(council) 또한 기타 사람들에게 대한 건강보존, 질병예방 전문적간호원 이외의 직원의 감독과 지도, 면허소지 의사와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과 처치의 시행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급료가 지급되는 일을 의미한다. 즉 이일은 전문적 판단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생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이론적지식과 그 응용력이 기반이 되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의 것들중 의학적진단, 치료 또는 교정방법의 처방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는 포함 되지 않는다¹⁴⁾.

이것은 오늘날 생각하면 이전 것에 비하여 훨씬 독자성을 지녔고 발전했으나 보편적이며 아직도 불만하다. 정의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누구에게나 만족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원 의에도 D. Osler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같이 인간 간호를 하라”고 했으며

D. Meakins는 “간호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의 정의에 대하여 불만

을 표시했으며 간호원에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통제(control)하라”고 충고 했었다(1948).

시대가 변하고 사회문화 또는 특질이 변천하면서 간호의 조건도 변화해 간다.

1960년대에 들어 서면서 Virginia Henderson 은 간호의 독자성, 전문성을 주장하였으며 그는 간호 독자적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강 또는 불건강을 막론하고 각 개인을 도와 주는데 있다.

어떤 점에서 도와주느냐 하면 건강생활, 전장 회복, 또는 편안하게 죽도록 인도해 주는것. 이런 일들은 만약 본인이 필요한 만큼 강하며 의지와 지식도 결비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할수 있을지 모른다. 하여간 이런 일들에 기여(Contribute)하는 활동이 간호원의 일이다. 그리고 환자 또는 건강한 사람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본인을 도와서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self care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하는것이다.

또 간호원은 의학적진단, 치료 및 처방은 아니한다. 또 예후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안한다. 이것은 다 의사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 일을 하지 않는 한 독립한 직업인은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논점(論點)이다. 즉 간호원은 기본적 간호(Nursing care)의 권위자이다⁶⁾.

이 기본간호란 다음과 같은 행동에 관하여 환자를 원조(도와주는것)하는 것이다. 또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정상 호흡, 음식, 배설, 운동 및 자세, 휴식 및 취미, 의복선택 및 조절, 환경조절, 체온유지, 신체청결보존, 피부보호 및 의모단정, 사고방지, 요구, 공포 자기의견을 표현할수 있는 의사소통 신앙과예배, 자기달성(self achievement)의 충족 Recreation과 여가생활, 정상발육 및 건강교육, 보건시설 활용 등에 관한 일등이다.

이상의 행동에 관하여 환자를 원조함에 있어 간호원은 생물학 사회과학적 지식 및 이것들을 기초로 하는 여러가지 기술이 한없이 필요하다. 또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Canada의 어떤 유

명한 의사는 “두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 즉 care와 treatment다. 또한 어떤 것이 더 귀한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Ⅲ. 간호교육 및 학습계획(Teaching and learning program)의 발전

1. 철학(Philosophy) 원칙

간호학의 각 과목의 원리는, 각각 고립된 과목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과목들은 언제나 총합교과과정(total curriculum)의 기틀(framework)안에 있는 것이다.

경치를 그리려는 화가는 우선 주제(subject-matter)가 되는 물체를 선택하고 그다음 초점을 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구상한다. 그림이 다되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효과적으로 융합되어 완성된 작품은 부분 부분의 집합된 것 이상의 부분 부분이 서로 보충되고, 얼키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문간호(professional nursing)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보다는 더욱 제정된 학교 방침(philosophy)과 확실하게 정의(defined)된 교과과정 목적에 따라 통합되던 방침이 확정된 조직적인 임상 및 교실의 학습계획(classroom program)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침을 제정하는데는 교수회에서 승인된 다음의 몇가지 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확인한다.

1. 간호란 무엇인가 (What nursing is)
2. 간호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느냐 (What nursing could or should be)
3. 교육이란 무엇이나 (What education is)
4.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how student learn)
5. 학습장의 가장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constitutes the best atmosphere in which learning can take place)
6. 학습경험 지도의 책임을 지는 이는 누구인

가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ion of learning experience)

환언하여 말하면 각 과목이 單一과목으로 발전시키기 전에 자기학교 전체의 기능, 졸업생의 특성 교과과정의 성질 (nature) 또한 각과목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가의 그림에는 초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학교 속에도 기능이 있고 바로 이것은 좋은 간호원을 육성해 내는 일이다.

각 학교는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가지는 주장 (claim)을 갖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교과과정이라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간호업무에 관한 이상 (ideals)과 나라에서 제정해준 필수과목에 의하여 인도되지만 각학교는 각각 다른 자기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각학교가 다 필수과목과 간호업무의 이상 (理想 ideals)을 반영시키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 계획은 단일화 (unique) 될 것이고 전문적 내용의 각 과목에 들어가기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학교의 목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또는 학습방법, 원리 (원칙, principle)가 목표를 확실히 그려 내도록 되어 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V. 교과과정 계획과 학습경험의 선택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원리

Curriculum Planning (교과과정 계획)

교과과정을 계획하는 실제적 목적은 가장 이상적인 학습 (Learning)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다 이상적 교과과정 안을 세우려면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일이다. 또한 예정된 교과과정안을 세우기전에 먼저 이미 실시된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때 과목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진행될 때는 흔히 일어나기 쉬운 중복은 이것에 의해서 피할 수 있게 된다.

전통은 귀중히 여길만한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를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다.

교과과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좌우하는 몇가지 요소 (factor)가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수가 교육원리 (철학)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나 에 영향된다. 즉

학생을 위한 학습경험 (learning experience)를 계획할 때 그목적 (philosophy)과 목표 (objective)가 무엇인가, 어떠한 교육방법 (teaching method)을 채택하는나 이와같은 것에 대한 교수의 생각은 교과과정을 작성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다음 factor가 되는 것은, 즉

학생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사회가 요망하는 것 그 시대의 경향, 그시대의 전문가 교수 (Specialist)의 저서나 논설, 또는 그 성과 등을 참작하는 일들도 중요한 일이다.

기타 요소 (factor)들로는 그시대의 교과서, 의학과 치료의 동향이나 경향, 고등학교의 교과내용, 간호원 법규, 및 인가 (면허)제로 경제적 인 뒷받침 (사회외) 등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factor가 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factor의 여건에 입각하여 신중한 사전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잘 준비된 계획은 체계적 (logical)으로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들면 학생의 학습경험 (learnig experience)의 순서를 비교적 단순 간단 (simple), 한 것에서 부터 복잡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만들며 학습은 촉진될 것이다.

1. 교과과정의 수정

교과과정은 고정되거나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회의동향, 학생의 경향, 새로운 연구에 의한 사고 (New findings from research). (즉 학문의 경향) 등에 비추어 끈임 없이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수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전직원이 총동원하여 참가해야 하기때문에 큰 일이 버려지곤한다.

교과과정 수정에 있어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까지 해내려온 방법이나 전통적방법에 안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겠고, Curriculum 실시양과 시간의 부족, 상급(上級)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압력들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으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기초의 설정” 즉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작하기까지 이끄러갈 운반법이 문제이라고 생각된다.

두엇보다 먼저 교과과정을 수정 변경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치 테니스선수가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 새 기술을 연마하여 체득하는 것과 같다. 현재의 실력을 지니지 않고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한다.

그런데 교육자들은 이미 부족한 것 두성이의 결과를 가져온 케케묵은 태도, 지식, 기술을 쓸 어모아 교과과정을 개정하려고 반복 시도해 보려고 한다.

2. 학습경험의 선택(정)

학습경험이란 그리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많다. 그 목적이 틀린 방법이나 어려움이 추구될 때 그것은 시간의 소모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 열성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함을 막기위해 교수가 학습경험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도원칙을 지켜나가던 도음이 되리라 생각된다.

1. 학생은 교과과정 계획의 목표(objectives)를 인식해야 한다.
2. 학습경험은 과목목적과 동시에 학교의 방침과 일치한다.
3. 학습경험으로는 목표에 표시된 행위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4. 목표에 표시된 행위는 학생이 만족하여 흥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다.
5. 학생이 시행하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면서도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경험을 주도록 준비한다.
6. 몇가지의 경험에 의해 하나의 목표의 필요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7. 그뿐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몇개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8. 학습경험은 : 학생각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지니도록 한다.

9. 이제 부터의 학습경험은 연속성(Continuity)이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시간배정이 부적당하고 연속성과 일관성 및 통일성(integration)을 무시하고 준비된 학습경험은 무기력(engender flings of helplessness), 불안(anxiety), 분개(resentment) 및 죄악감(guilt) 등의 감정을 낳는다⁶⁾.

학습경험 선정에 학생이 원조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즉 학생의 학습의 가치는 크고 또한 learner(학생)에게 학습책임의 한 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된다.

하나하나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목표에 비추어 보도록 한다.

학습 경험의 편성에 있어서 생각할 것은 학생은 여가(extra time)를 가장 가치있게 생각한다.

여기 하나의 중점은 빨리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이론(theory)을 실행에 옮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배우는데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교과정, 학습경험 편성의 원칙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교수는 3가지 중요한 기준인.

- 1) 계속성, 2) 일관성, 3) 통일성이

충족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경험의 준비와 편성을 함으로써 올 수 있다⁷⁾.

Recommendation

앞으로 이 문제에 계속하여 교과과정의 계획이나 결정에 기반의 될 수있는 다음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연구할만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여기 recommendation 하는 바이다.

※ Intergrating framework은 교과 과정의 경험과 일치(조화)를 가져온다.

※ 교과과정의 발전과 성장의 평가를 위한 기반이 무엇인가 등이다.

추언하는 바는 앞으로 본인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이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foot note

1. Nightingale, Florence: *note on nursing*, J. 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46, p. 79.
2. Taylor, E. J.: "Of What is the nature of nursing" *A.J.N.* 34:476.
3. Hendersen, Virginia: *The Nature of Nursing*,

Macmillancemp. New York 1966, pp. 2-31

4. *Ibid.* pp 3-4
5. *Ibid* pp. 16-17
6. Towle, Charlotte: *The learner in Education for the Profession*, Chicago Univ. Press, 1954
7. Tyler, Ralph: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 Press, 1950

철학적 기반

최대한의 건강을 위하여 인간을 돕는것

서울의대 간호학과 과장
이 귀 향

一. 서론

서기 200년이던 우리나라도 중진국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30년간의 교육도 자연 여기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1. 중진국이 요청하는 인력의 공급은 교육이 맡아야 한다. 여기에 산학(産學)일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이다.

2. 경제개발과 교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에 추종하거나 경제의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사명은 참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양적 팽창에 따를 질적향상이 문제가 된다.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느냐? 각급학교의 교육중 어느 것에 우선 소위를 둘 것인가?

4. 이런 난문을 해결하려면 교육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교육철학의 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인접과학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二. 중진국의 인력구조와 교육

1. 중학교까지 9년으로 의무교육이 연장된다. 시설확립, 교직원 확보, 분교예산이 방대해진다.

2. 인력의 균형이나 정상화를 위하여 현 교육체도와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흥등유민을 감축

시켜 사회불안을 제거해야 한다.

3. 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교육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고 여성인력의 적절한 이용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三.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1. 산학일치의 이념에서 직업교육을 중시하기 쉬우나 폭넓고 튼튼한 일반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교육 또는 일반 교육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2. 직업인 양성에 있어, 학교의 이념, 직장의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완성을 학교에 요구하지 말고 직장에 부설된 현장훈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3. 발전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는 적응성이 강한 인재를 육성해야만 하며 미래지향적인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4. 직업지도의 필요성은 직종이 많아지고 변질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즉 직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四. 중진사회의 특징과 교육의 방향

1. 풍요한 사회가 되면 여가가 많아진다. 여가선용의 교육이 필요하다.